

## 농촌주민의 사회단체 참여와 농촌역할에 대한 인식

조영숙\*, 이한기, 박은식, 고정숙, 조륙환, 황대용, 강경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1. 서 론

1990년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아름답마을가꾸기(행자부), 새농어촌건설사업(강원도) 등 중앙부처 혹은 지방정부의 주도로 다원적 농촌발전과 주민참여를 중시하는 새로운 시범사업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60~70년대 산업화·공업화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부문으로 유입되었고, 80년대 이후 농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되었고, 농촌지역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의 변화로 농업·농촌의 신규 인력 대체가 어려워지면서 2000년 농촌인구 중 여성인구 50.2%, 65세 이상 노인인구 14.7%를 차지하는 즉 도시 인구의 2.7배나 되는 인구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UR 농업협상과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농촌 내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형적 인구구조는 농촌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였고, 농업과 지역 상공업의 낮은 발전 수준으로 인해 내생적 발전을 위한 지역주체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역단위 정부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서도 지역주체 역량 강화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다. 지역주민들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는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참여의식을 향상시키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농촌주민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생적 발전과 지역활력을 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민들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와 농촌의 역할 인식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활력을 위한 농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및 내용

#### 가. 조사방법

농촌지역을 읍, 면부로 한정하여 우리나라 전국 농촌지역(읍, 면 단위)의 일반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지역 및 대상은 1차 추출(읍/면), 2차 추출(행정리(里)), 3차 추출(가구) 등 다단계화 집락추출법으로 선정된 전국 88개 시군 187개 행정리 1,870가구의 가구주나 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2000년부터 위촉한 농촌생활연구 현지조사 모니터요원 156명이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조사원 교육은 2003. 10.30~31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3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 나. 조사내용

사회단체 가입 및 활동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단체는 협동조합(농협, 축협 등), 협동조합외 생산자 조직(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학습단체(품목별연구회, 4-H, 생활개선회, 농가주 등), 자원봉사단체(라이온스, 로타리, JC 등), 종교단체(종교생활외의 사회활동), 시민사회단체(전농,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단체 등), 정당으로 분류하여 미가입, 이름만 올림, 적극 활동으로 측정하였다.

농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농촌은 건강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농촌은 어린이를 키우기에 좋은 장소이다', '농촌은 공동체의식이 강하다', '농촌은 범죄에 안전하다', '농촌은 생활비가

적게 든다', '농촌은 좋은 직업을 얻기가 어렵다', '농촌은 생활이 단조롭고 지겹다'라는 항목을 그렸다, 아니다로 측정하였다.

다. 자료처리 및 분석

조사의 결과분석에서는 추출된 표본가가구도 와 읍면의 실제 가구수에 따른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추출확률을 고려한 승수(가중치)를 적용하여 통계량을 계산하였다. 조사항목의 분석은 지역별, 영농여부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3. 조사결과 및 분석

1) 사회단체 가입 및 활동

(1) 사회단체 가입

농촌주민들의 사회단체 가입정도는 <그림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협동조합 80.8%, 생산자조직 29%, 종교단체 20.6%, 학습단체 12.7%, 정당 9.8%, 시민사회단체 6.7%, 자원봉사단체 5.3%로 (복수응답) 생산 관련 및 종교단체 가입 비율이 높고, 정당, 시민사회 및 자원봉사 관련 단체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직접적인 생산 및 소득과 연계성이 약한 지역개발사업에서 농촌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주민 의식교육이 요구되며, 정당 가입보다 전농이나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사회단체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직접적인 의사표현과 단체행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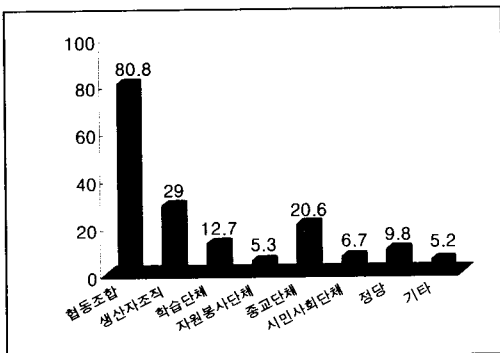


그림 1. 농촌주민의 사회단체 가입률

기 위한 이익단체(interest group)적 성향의 성장은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2) 사회단체 종류별 가입 및 활동 정도

사회단체 종류별 가입과 활동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협동조합(농협, 축협 등)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협동조합 가입 및 활동정도는 가입률 80.8%에 '이름만 올림' 45.7%, '적극 활동' 35.2%로 나타났다. 지역별 협동조합 가입 및 활동 정도를 비교하면 가입률은 먼지역이 높았으나 적극적 활동은 읍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입정도도 높고 적극적이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6~70대보다 4~50대의 '적극 활동'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해 소극적인 활동비율이 높고, 읍지역, 4~50대와 고학력자의 협동조합 참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이 먼지역, 고령자, 저학력자 등의 사회참여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1> 참조).

(나) 협동조합 외 생산자 조직(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협동조합 외 생산자 조직 가입률은 29.0%로서, 활동정도는 '적극 활동' 16.9%, '이름만 올림' 12.1%로 나타났다. 지역과 성별에 따라서는 읍지역과 남성의 가입률과 적극 활동 정도가 높았으며,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는 4~50대와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 활동 비율이 높았다. 협동조합 외 생산자 조직 활동정도는 협동조합처럼 가입비율 자체는 높지 않지만 실질적인 생산 목적과 연계된 때문인지 소극적 활동보다는 적극적 활동이 약간 높았다. 그리고 생산자조직 활동을 통해 협동조합에서 충족되지 못한 어떤 욕구가 있었는지를 추후 조사하는 것도 협동조합의 농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완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표 2> 참조).

(다) 학습단체(품목별연구회, 4-H, 생활개선회, 농가주 등)

표 1. 협동조합(농협, 축협 등) 가입 및 활동정도(농가 대상)

구 분		미가입	이름만	적극활동	전 체
전체		19.2	45.7	35.2	100.0(1415)
지역	읍	20.4	38.3	41.3	100.0( 494)
	면	18.5	49.6	31.9	100.0( 921)
성별	남	13.7	47.2	39.1	100.0( 758)
	여	25.4	43.8	30.7	100.0( 657)
연령	30대이하	29.5	42.0	28.4	100.0( 88)
	40대	17.8	37.8	44.4	100.0( 259)
	50대	14.1	36.2	49.7	100.0( 298)
	60대	16.0	52.8	31.2	100.0( 445)
	70대이상	26.5	51.7	21.8	100.0( 325)
학력	무학	32.8	48.1	19.1	100.0( 335)
	초졸	13.4	50.2	36.4	100.0( 588)
	중졸	12.2	42.2	45.6	100.0( 237)
	고졸이상	20.9	35.0	44.1	100.0( 254)

표 2. 협동조합 외 생산자조직 가입 및 활동정도

구 분		미가입	이름만	적극활동	전 체
전체		71.0	12.1	16.9	100.0(1357)
지역	읍	68.9	10.8	20.3	100.0( 472)
	면	72.1	12.8	15.1	100.0( 885)
성별	남	67.8	13.2	19.0	100.0( 727)
	여	74.7	10.7	14.6	100.0( 629)
연령	30대이하	73.8	10.7	15.5	100.0( 84)
	40대	58.1	13.8	28.0	100.0( 246)
	50대	60.7	11.0	28.3	100.0( 290)
	60대	73.8	13.6	12.6	100.0( 427)
	70대이상	86.5	9.7	3.9	100.0( 310)
학력	무학	82.0	10.5	7.4	100.0( 323)
	초졸	71.5	11.0	17.5	100.0( 565)
	중졸	61.1	16.4	22.6	100.0( 226)
	고졸이상	64.5	12.4	23.1	100.0( 242)

농가 대상의 학습단체 가입률은 12.7%로서 활동 정도는 '적극 활동' 7.8%, '이름만 올림' 4.8%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가입 및 활동정도는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면지역의 적극 활동비율이 약간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들의 가입률이 약간 높았으나 활동정도는 약간 낮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3~50대의 적극 활동'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가입과 적극 활동 비율이 높았다. 협동조합이나 다른 생산자 조직과 달리 면지역에서 그리고 여자의 학습단체 활동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읍지역보다 면지역 거주자가 생활개선회와 같은 학습단체를 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필요

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습단체에는 생활개선회, 농가주 등 농촌 여성 중심의 단체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농촌여성들의 학습의욕이 정치 및 사회참여 욕구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라) 자원봉사단체(라이온스, 로타리, JC 등)

자원봉사단체 가입률은 5.3%로서 활동 정도는 '적극 활동' 3.5%, '이름만 올림' 1.9%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역별, 영농여부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면지역보다는 읍지역이, 농가보다는 비농가가, 여성보다는 남성의 가입률과 적극 활동 비율이 높았고, 4~50대의 활동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학

표 3. 학습단체 가입율 및 활동정도(농가 대상)

구 분		미가입	이름만	적극활동	전 체
전체		87.3	4.8	7.8	100.0(1320)
지역	읍	87.0	5.5	7.5	100.0( 454)
	면	87.5	4.5	8.0	100.0( 866)
성별	남	88.0	4.9	7.1	100.0( 700)
	여	86.5	5.0	8.5	100.0( 621)
연령	30대이하	81.9	10.8	7.2	100.0( 83)
	40대	72.4	9.2	18.4	100.0( 239)
	50대	80.8	6.2	13.0	100.0( 276)
	60대	93.1	2.9	4.1	100.0( 418)
	70대이상	98.0	1.6	0.3	100.0( 305)
학력	무학	96.5	2.5	0.9	100.0( 317)
	초졸	90.1	3.3	6.7	100.0( 553)
	중졸	80.3	6.9	12.8	100.0( 218)
	고졸이상	75.1	9.9	15.0	100.0( 233)

력이 높을수록 가입률과 적극 활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지역에서 자원봉사단체 활동이 높은 것은 면지역에서는 이러한 조직체 구성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접근성 기회가 적어서, 그리고 농가의 활동 비율이 낮은 것은 영농으로 인한 자원봉사 시간을 낼 수 없어서로 해석된다. 또한 농촌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남성위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볼 수 있다(<표 4> 참조).

(마) 종교단체(종교생활 외의 사회활동)

종교생활외의 종교단체 가입률은 20.6%로서

활동을 하는 정도는 '적극 활동' 10.4%, '이름만 올림' 10.1%로 가입률이 생산 관련 조직 다음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읍지역의 가입률과 적극 활동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여성의 가입과 활동 비율이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읍지역에서 종교단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읍지역의 거주자가 젊고 탈유교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한편으로는 인구가 밀집된 읍지역에서 교회 등의 숫자가 많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면지역 농촌에 거주하는

표 4. 자원봉사단체 가입 및 활동정도

구 분		미가입	이름만	적극활동	전 체
전 체		94.7	1.9	3.5	100.0(1728)
지역	읍	93.6	1.8	4.6	100.0(657)
	면	95.3	1.9	2.8	100.0(1071)
농가 여부	비농가	94.0	2.0	4.0	100.0(398)
	농가	95.0	1.8	3.2	100.0(1329)
성별	남자	93.7	1.8	4.5	100.0(844)
	여자	95.7	1.8	2.5	100.0(883)
연령	30대이하	94.3	1.4	4.3	100.0(141)
	40대	90.0	3.4	6.5	100.0(321)
	50대	91.3	3.8	4.9	100.0(345)
	60대	96.6	0.6	2.8	100.0(495)
	70대이상	99.1	0.7	0.2	100.0(425)
학력	무학	99.1	.5	0.5	100.0(436)
	초졸	96.2	1.3	2.5	100.0(639)
	중졸	93.0	1.4	5.6	100.0(284)
	고졸이상	88.6	4.6	6.8	100.0(367)

표 5. 종교단체 가입 및 활동정도

구 분		단위 : %(명)			
전 체		미가입	이름만	적극활동	전 체
		79.4	10.1	10.4	100.0(1742)
지역	읍	74.4	13.0	12.7	100.0(655)
	면	82.5	8.4	9.1	100.0(1087)
농가 여부	비농가	78.7	9.9	11.4	100.0(404)
	농가	79.7	10.2	10.2	100.0(1338)
성별	남자	80.7	10.0	9.3	100.0(849)
	여자	78.3	10.2	11.4	100.0(891)
연령	30대이하	75.7	12.9	11.4	100.0(140)
	40대	78.8	8.6	12.6	100.0(326)
	50대	74.8	12.6	12.6	100.0(349)
	60대	81.5	9.3	9.3	100.0(497)
	70대이상	82.6	9.5	7.9	100.0(430)
학력	무학	86.8	8.2	5.0	100.0(440)
	초졸	79.6	9.6	10.7	100.0(643)
	중졸	75.9	14.3	9.8	100.0(286)
	고졸이상	73.0	10.2	16.8	100.0(374)

경우 영농의 특성상 주일에 종교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곤란한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으리라 해석된다. 그리고 고학력자들이 종교생활외의 종교단체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바) 시민사회단체(전농,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가입률은 6.7%로서 활동정도는 '적극 활동' 3.9%, '이름만 올림' 2.8%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의 가입 및 활동의 경우는 집단 특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읍지역, 남자 집단

에서 가입과 활동 정도가 높았고, 농가에서는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활동정도는 높았다. 4-50대의 적극 활동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가입과 적극 활동 비율이 높았다. 시민단체 활동은 정당가입과 달리 농가가 비농가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가들이 정당활동보다 전농이나 참여연대 등의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표6> 참조).

(사) 정당

정당 가입률은 9.8%로서, 활동 정도는 '이름만

표 6. 시민사회단체 가입 및 활동정도

구 분		단위 : %(명)			
전 체		미가입	이름만	적극활동	전 체
		93.3	2.8	3.9	100.0(1728)
지역	읍	92.9	2.6	4.4	100.0(652)
	면	93.5	2.9	3.6	100.0(1076)
농가 여부	비농가	94.2	2.3	3.5	100.0(397)
	농가	93.0	2.9	4.1	100.0(1331)
성별	남자	92.7	3.0	4.3	100.0(840)
	여자	93.8	2.6	3.6	100.0(888)
연령	30대이하	94.3	2.1	3.6	100.0(140)
	40대	87.1	6.2	6.8	100.0(325)
	50대	89.8	2.6	7.6	100.0(342)
	60대	96.3	1.4	2.2	100.0(493)
	70대이상	97.2	1.9	0.9	100.0(427)
학력	무학	98.4	0.9	0.7	100.0(436)
	초졸	94.7	2.2	3.1	100.0(644)
	중졸	87.2	5.0	7.8	100.0(282)
	고졸이상	89.3	4.4	6.3	100.0(366)

표 7. 정당 가입 및 활동정도

단위 : %(명)

구 분	미가입	이름만	적극활동	전 체	
전 체	90.2	6.7	3.1	100.0(1692)	
지역	읍	88.4	7.9	3.6	100.0( 632)
	면	91.3	5.9	2.7	100.0(1060)
농가 여부	비농가	93.6	3.1	3.3	100.0( 390)
	농가	89.3	7.7	3.0	100.0(1300)
성별	남자	87.6	8.2	4.2	100.0( 817)
	여자	92.7	5.1	2.2	100.0( 875)
연령	30대이하	91.0	8.3	0.8	100.0( 133)
	40대	89.2	7.3	3.5	100.0( 315)
	50대	85.2	8.6	6.2	100.0( 337)
	60대	89.9	7.0	3.1	100.0( 485)
	70대이상	95.5	3.6	1.0	100.0( 420)
학력	무학	95.2	3.2	1.6	100.0( 434)
	초졸	89.8	7.2	3.0	100.0( 625)
	중졸	84.3	9.3	6.4	100.0( 280)
	고졸이상	90.1	7.7	2.3	100.0( 352)

올림' 6.7%, '적극 활동' 3.1%로 나타났다. 정당 가입 및 활동의 경우는 읍지역과 남자집단에서 가입과 활동 정도가 적극적이었고 농가에서는 비농가보다 가입률은 높으나 활동정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표 7> 참조).

요약하면 농촌주민들의 사회단체 가입 및 활동 정도는 면지역에서 협동조합, 협동조합 외 생산자조직 가입비율이 높고, 읍지역에서는 학습·종교·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의 참여 비율이 높아 면지역보다 다양한 사회참여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영농여부별로 비교하면 농가에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 정당 가입이 비농가보다 높아 정치 및 사회참여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교단체 가입비율은 낮아 농가에서 전통 유교중심적인 의식이 더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들은 여러 사회단체 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학습단체에서는 여성의 가입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40~50대의 사회단체 가입과 참여비율이 높고, 고학력자들의 사회단체 활동이 적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2) 농촌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도시와 비교하여 농촌의 역할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을 비교하면 <그림 2>와 같이 건강에 좋은 환경>구직 어려움>강한

공동체 의식>생활비 절약>범죄에 안전>생활의 단조로움의 순으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어린이 양육에 좋은 환경'은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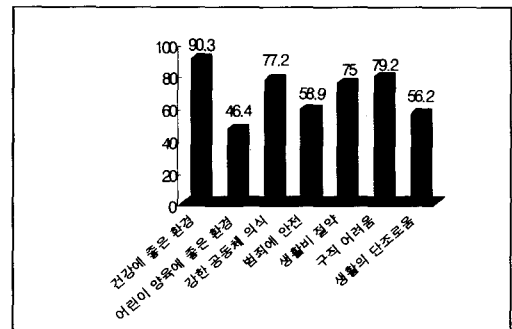


그림 2. 농촌주민의 농촌역할에 대한 인식

(1) 건강에 좋은 환경

'농촌은 건강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 비율이 90.3%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지역별, 영농여부별,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긍정적이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이었다(<표 8> 참조).

(2) 어린이 양육환경

'농촌은 어린이를 키우기에 좋은 장소이다'라

표 8. 농촌은 건강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단위 : %(명)

구 분		긍정	부정	전 체
전 체		90.3	9.7	100.0(1861)
지역	읍	89.6	10.4	100.0(701)
	면	90.8	9.2	100.0(1160)
농가 여부	비농가	90.3	9.7	100.0(422)
	농가	90.3	9.7	100.0(1438)
성별	남자	89.1	10.9	100.0(909)
	여자	91.6	8.4	100.0(951)
연령	30대이하	89.2	10.8	100.0(148)
	40대	87.5	12.5	100.0(352)
	50대	89.5	10.5	100.0(373)
	60대	92.3	7.7	100.0(534)
	70대이상	91.4	8.6	100.0(453)
학력	무학	92.5	7.5	100.0(452)
	초졸	91.6	8.4	100.0(692)
	중졸	87.3	12.7	100.0(315)
	고졸이상	88.1	11.9	100.0(402)

는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46.4%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부정적인 응답은 면지역과 농가, 남자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취학이전의 어린이나 정서상의 문제를 질문한 것인데 취약한 농촌지역 특히 면지역과 농가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양육환경을 교육과 관련짓는 시각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오늘날 농촌 학교가 폐교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환경의 악화에 기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된다(<표 9> 참조).

(3) 공동체 의식

‘농촌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라는 항목에서는 긍정 비율이 77.2%로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 응답은 읍지역, 비농가, 여자집단에서 약간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긍정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농촌인구의 신규 취농인구가 유입되고, 고학력이 될수록 공동체 의식은 약화될 것이다. 또한 읍지역과 비농가

표 9. 어린이 양육환경

단위 : %(명)

구 분		그렇다	아니다	전 체
전 체		46.4	53.6	100.0(1848)
지역	읍	48.1	51.9	100.0( 697)
	면	45.4	54.6	100.0(1151)
농가 여부	비농가	55.4	44.6	100.0( 419)
	농가	43.8	56.2	100.0(1429)
성별	남자	42.1	57.9	100.0( 900)
	여자	50.5	49.5	100.0( 947)
연령	30대이하	49.3	50.7	100.0( 146)
	40대	40.6	59.4	100.0( 350)
	50대	44.7	55.3	100.0( 369)
	60대	47.3	52.7	100.0( 531)
	70대이상	50.3	49.7	100.0( 451)
학력	무학	52.1	47.9	100.0( 453)
	초졸	43.2	56.8	100.0( 683)
	중졸	43.4	56.6	100.0( 311)
	고졸이상	47.5	52.5	100.0( 400)

표 10. 공동체 의식

구 분		그렇다	아니다	전 체
전 체		77.2	22.8	100.0(1845)
지역	읍	79.2	20.8	100.0(692)
	면	76.1	23.9	100.0(1153)
농가 여부	비농가	77.7	22.3	100.0(421)
	농가	77.1	22.9	100.0(1423)
성별	남자	75.3	24.7	100.0(903)
	여자	79.1	20.9	100.0(942)
연령	30대이하	73.5	26.5	100.0(147)
	40대	72.1	27.9	100.0(348)
	50대	74.2	25.8	100.0(372)
	60대	82.9	17.1	100.0(526)
	70대이상	78.3	21.7	100.0(451)
학력	무학	81.8	18.2	100.0(450)
	초졸	79.3	20.7	100.0(682)
	중졸	70.2	29.8	100.0(312)
	고졸이상	74.2	25.8	100.0(399)

에서 공동체 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 즉 지리적 근린성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대체할 소집단(small group)이나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의 증가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농촌에서 공동체 의식 약화를 방지할 방안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촌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표 10> 참조).

(4) 범죄에 대한 안전

‘농촌은 범죄에 안전하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 비율이 58.9%로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집단별로 비교하면 읍지역보다 면지역에서, 비농가보다 농가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농촌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여 농촌지역이 개발될수록, 농업이외 타 산업이 유입될수록 범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므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표 11> 참조).

(5) 생활비 절약

‘농촌은 생활비가 적게 든다’라는 항목에서는

표 11. 범죄에 대한 안전

구 분		그렇다	아니다	전 체
전 체		58.9	41.1	100.0(1857)
지역	읍	54.1	45.9	100.0( 701)
	면	61.9	38.1	100.0(1156)
농가 여부	비농가	57.9	42.1	100.0( 423)
	농가	59.2	40.8	100.0(1433)
성별	남자	59.1	40.9	100.0( 906)
	여자	58.8	41.2	100.0( 951)
연령	30대이하	49.3	50.7	100.0( 148)
	40대	50.1	49.9	100.0( 349)
	50대	53.1	46.9	100.0( 373)
	60대	66.8	33.2	100.0( 533)
	70대이상	64.3	35.7	100.0( 454)
학력	무학	65.0	35.0	100.0( 452)
	초졸	62.6	37.4	100.0( 689)
	중졸	53.2	46.8	100.0( 316)
	고졸이상	50.3	49.8	100.0( 400)



표 12. 생활비 절약

구 분		단위 : %(명)		
전 체		그렇다	아니다	전 체
		75.0	25.0	100.0(1850)
지역	읍	75.7	24.3	100.0(700)
	면	74.5	25.5	100.0(1150)
농가 여부	비농가	73.2	26.8	100.0(422)
	농가	75.5	24.5	100.0(1429)
성별	남자	77.7	22.3	100.0(903)
	여자	72.4	27.6	100.0(948)
연령	30대이하	63.3	36.7	100.0(147)
	40대	64.8	35.2	100.0(349)
	50대	69.1	30.9	100.0(372)
	60대	83.8	16.2	100.0(531)
	70대이상	81.2	18.8	100.0(452)
학력	무학	82.1	17.9	100.0(452)
	초졸	78.0	22.0	100.0(686)
	중졸	69.1	30.9	100.0(314)
	고졸이상	66.2	33.8	100.0(399)

긍정적 응답이 75.0%로 높은 편이었다. 집단별로 비교하면 면지역보다 읍지역에서, 비농가보다 농가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면지역과 젊은 층에서는 의료 및 교육서비스, 문화활동, 기타 주요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이동하는데 드는 교통요금, 부조금 등으로 농촌지역은 생활비에서도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다(<표 12> 참조).

(6) 구직 어려움

‘농촌은 좋은 직업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항목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79.2%로 높게 나타났으며, 읍지역, 비농가, 남자집단과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농업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직 어려움은 덜 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학력이 낮은 고연령층 남자집단에서 구직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해 취업정보를 공유할

표 13. 구직 어려움

구 분		단위 : %(명)		
전 체		그렇다	아니다	전 체
		79.2	20.8	100.0(1858)
지역	읍	79.9	20.1	100.0(702)
	면	78.8	21.2	100.0(1156)
농가 여부	비농가	82.9	17.1	100.0(422)
	농가	78.1	21.9	100.0(1435)
성별	남자	78.9	21.1	100.0(906)
	여자	79.5	20.5	100.0(951)
연령	30대이하	76.4	23.6	100.0(148)
	40대	77.8	22.2	100.0(351)
	50대	79.7	20.3	100.0(374)
	60대	79.9	20.1	100.0(532)
	70대이상	80.1	19.9	100.0(452)
학력	무학	80.2	19.8	100.0(454)
	초졸	79.1	20.9	100.0(688)
	중졸	78.4	21.6	100.0(315)
	고졸이상	79.0	21.0	100.0(400)

표 14. 생활의 단조로움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단위 : %(명)
전 체		56.2	43.8	100.0(1843)
지역	읍	59.3	40.7	100.0( 697)
	면	54.4	45.6	100.0(1146)
농가 여부	비농가	57.9	42.1	100.0( 420)
	농가	55.7	44.3	100.0(1422)
성별	남자	58.8	41.2	100.0( 898)
	여자	53.7	46.3	100.0( 944)
연령	30대이하	58.2	41.8	100.0( 146)
	40대	56.5	43.5	100.0( 347)
	50대	53.0	47.0	100.0( 372)
	60대	56.2	43.8	100.0( 530)
	70대이상	58.0	42.0	100.0( 448)
학력	무학	56.2	43.8	100.0( 452)
	초졸	54.7	45.3	100.0( 682)
	중졸	56.1	43.9	100.0( 312)
	고졸이상	58.8	41.2	100.0( 396)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표 13> 참조).

(7) 생활의 단조로움

‘농촌은 생활이 단조롭고 지겹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56.2%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다. 집단별로 보면 읍지역, 비농가, 남자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면지역과 농가에서는 농사일이 생활과 연계되는 생활특성상 단조롭고 지루하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표 14> 참조).

3) 향후 농업·농촌역할에 대한 인식

향후 농업·농촌의 역할 중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5>에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44.7%)>자연환경보전(20.4%)>국토균형발전(10.8%)>전원공간제공(10.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여가공간제공’과 ‘전통문화보존’은 5%

표 15. 농업·농촌역할에 대한 인식

구 분		식량 안정공급	자연환경 보전	여가 공간제공	전원 공간제공	국토 균형발전	전통문화 보존	노동력 제공	단위 : %(명)
전 체		44.7	20.4	4.6	10.3	10.8	3.6	4.8	100.0(1856)
지역	읍	36.6	22.9	5.0	11.9	13.6	4.0	4.6	100.0( 700)
	면	49.6	18.9	4.3	9.3	9.2	3.4	5.0	100.0(1156)
농가 여부	비농가	36.4	25.2	6.7	11.2	11.2	4.5	4.0	100.0( 420)
	농가	47.1	19.0	4.0	10.0	10.7	3.3	5.0	100.0(1434)
성별	남자	46.7	17.3	4.4	8.3	13.7	3.2	5.5	100.0( 904)
	여자	42.8	23.4	4.6	12.1	8.1	4.0	4.2	100.0( 949)
연령	30대이하	23.1	24.5	8.8	11.6	17.7	3.4	7.5	100.0( 147)
	40대	36.6	23.0	5.7	13.6	11.6	2.6	6.5	100.0( 352)
	50대	40.5	26.2	3.0	12.2	11.4	3.0	2.7	100.0( 370)
	60대	46.9	20.3	3.8	9.0	10.4	4.0	5.1	100.0( 531)
	70대이상	58.5	12.3	4.8	7.3	8.4	4.4	4.0	100.0( 455)
학력	무학	56.3	15.7	5.1	7.3	6.2	3.3	5.8	100.0( 451)
	초졸	50.1	19.6	3.8	8.9	9.3	3.2	4.5	100.0( 688)
	중졸	40.9	20.1	3.8	12.8	10.9	4.2	6.1	100.0( 313)
	고졸이상	25.2	27.2	6.0	14.2	18.7	4.0	3.2	100.0( 401)

\* 기타 제외로 합계 100%가 안될 수 있음

이하의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의 경우는 읍지역보다 면 지역이, 비농가보다는 농가가,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자연 환경보전과 국토균형발전의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농업·농촌 정책적 입장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주목하여 농촌을 생산의 장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박경, 2003). 그러나 아직까지 농촌주민들의 농업·농촌역할에 대한 인식은 고전적 방식에 머물러 있어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창출에 홍보 및 의식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다양한 가치가 농가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직불제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결론 및 제언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을 되살리고 농촌지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들의 내생적인 지역개발 및 이에 대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상향식 지역개발, 지역에서의 파트너십 등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능력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들의 사회참여 의식과 지역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본다.

농촌주민의 사회단체 활동 및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는 생산 관련 및 종교 단체 가입 비율이 높고, 정당, 시민사회 및 자원 봉사 관련 단체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민들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기 위한 이익단체(interest group)적 성향의 성장은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었고, 농업·농촌의 역할 인식에 있어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가치를 두기 보다는 농업의 생산적 기능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농정의 방향과 사업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식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주민참여를 위한 지역의 잠재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2002). 농어촌 교육발전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박경(2003). 유럽의 지역발전정책. 유럽의 농촌지역정책과 LEADER 프로그램. 서울:한울아카데미. pp. 8-118.  
 박종렬(1997).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주민참여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이성우·임형백·조중구(2003). 도시와 농촌의 고용 기회 결정요인. 농촌경제 26(1), pp. 15-37.